머리말

컴퓨터라는 녀석과 씨름한 10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플래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배우기 쉬웠고 플래시가 연출하는 환상의 세계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필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플래시에 대한 질문란을 보면 플래시 관련 서적을 여러 권 보신 분들이 실제로 플래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플래시 서적을 몇 권씩 보고서도 플래시로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하는지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더군요.

1.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 따라하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예제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3. 풍부하지 못한 예제로 말미암아 배운 것 외에는 응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플래시 서적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한 예제를 통하여 직접 해보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제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어려움이 없도록 단 한가지의 과정도 생략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설명글을 담았습니다.

어떤 플래시 서적보다 많은 실전예제를 수록하여 여러분의 응용력을 키워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이 5개월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며 집필한 보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홈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정상석 주임님과 편집을 도와주신 김남곤씨, 그리고 책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소나기 편집 디자이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에게 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문희와 부모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장 일 호